이 몸은 백 번 만 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 19면에서 계속

으로 이것이 밝게 보인다 이겁니다. 밝게 보일 때에 이거를 본다고 해서 "나는 저 십 리 밖을 내다볼 수 있고, 저 다른 혹성을 내다볼 수 있으니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도가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가 있다고 해서 내 손이 정상적으로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병신이에요. 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다음에 팩스라고 해도 됩니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족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것도 거기에 붙어서 대두돼 있죠. 요것을 또, 두 가지를 다 안다고 해서, 이 손가락 두 개만 있다고 그래서 "아이구! 나는 뭐, 이만하면 됐어." 이러지 마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그릇을 비워서 밝게 나를 발견한 뒤에 체험하는 실험 도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보지 않고는 실험을 할 수 없고 듣지 않고는 실험을 할 수 없고, 남의 속을 알지 못하면 실험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입니다. 함이 없이 가고 올 수 있어야만이 다니면서 실험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를 쓰기 위해서 다섯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기계 하나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거기 부속품으로 다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그 부속품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기계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안다고 그래서 다가 아니고, 또 천체 무전통신기를, 천이통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가고 옴이 없이 간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어떠한 재료죠. 이걸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남을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또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거, 또는 모든 이 소리를 듣고 행하고 이래야만이, 실험하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당당해지는 그런 자기의 중심이 선다 이거죠.

그다음에 컴퓨터에는 과거의 모든 것이 입력이 돼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게 컴퓨터에 앞서 입력된 것이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를 거기다 다시 놓는 것입니다. '거기서밖에는 이걸 없앨 수 없고 거기서밖에는 이끌어 갈 수 없고 거기서밖에는 내가 나를 증명해 줄 수 없다.' 하고 거기다 다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부(父) 속에 자(子)가 들어 있고 자 속에 부가 들어 있다.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주인공밖에 없다는 거. 이 숙명통, 여기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 놓고 그렇게 가는 숙명통, 이걸 컴퓨터라고 합니다. 내가 말을 하다가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컴퓨터, 팩스 또 통신기, 또 뭡니까? 탐지기 또 망원경,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마음, 그 지배인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누진에 속해 있다. 누진은, 즉 말하자면 레이더망 중심에 있는, 내고 들이고, 소식을 안으로 전하고 바깥으로 전하고 중심을 지키면서 항상 돌아가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수시로 찰나찰나 들이고 내는 거를 연락하는 그러한 것이 누진입니다, 이걸 다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물질적인 자석이나,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자석은 자석대로 자석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물론 서독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딴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공사를 따내려고 애를 쓰는 나라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말입니다. 공중에 자석으로다가 그냥 쏜살같이 다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자력은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무량수와 같다. 그런 거와 같이 그런 자력만 쓸모가 있는 게 아니라 광력도 쓸모가 있는 거죠. 그 재료에 속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력이나 자력이나 전력, 통신력을 모두 두루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몸뚱이가 오븐과 같고 그 오븐에다 재료를 넣고 용탕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모두, 때에 따라서는 이거 먹고 싶으면 이것 먹고 저거 먹고 싶으면 저거 해 먹고 하듯이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참선을 찾느냐, 참나를 발견하느냐 이겁니다. 참나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임을 발견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내 임을 발견치 못하면 그 임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내 마음에서 나를, 자와 부가 둘이 아니게 계합이 돼야만이, 바로 부처님의 속도 역대 조사들의 속도 전부 한자리 한 그 뜻, 생각만 해도 찰나에 들었다가 찰나에 나시고 찰나에 들었다가 찰나에 나시고 하는 그 나툼, 그것이 바로 자유자재해야 한다 이겁니다. 유구무구하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법'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겠죠.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몸은 백 번 만 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돼지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팔고 내 성을 팔고 내 뼈다귀를 팔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가 내 자리 아님이 없고, 강당에 앉아 있으나 법당에 앉아 있으나 변소에 앉아 있으나 거기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참나는 거기 있으며 부처님도 거기 계신 겁니다.



언제나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아무리 마구니라 할지라도 마구니라는 생각을 말고
모자란다는 생각을 마세요.
모든 것은 내 모자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저 자리 따지고 이 몸 저 몸 따지고 이 상표 이 간판 따지고, 이 불교가 국한돼 있는 불교인 줄 알고 야단법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풀 한 포기든 모두가 불교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교는 말씀이니, 좋은 말씀이니 어떤 사람이 그거 안 지닌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으로, 자기 소견으로 요렇게 매 놓고서는 자기가 옴쭉 못 하는 것이 소견이죠.

중생은 소견을 좋아하지만, 이랬다저랬다 하는 걸 좋아하지만 보살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역대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보살 조사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살아 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또는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보살은 버리지 않는데 중생은 그 죽는다 산다 하는 데에 그만 어지럽게 끄달리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죽는다 하면 바로 이 시간에 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살은 산다 죽는다도 떠나죠.

여러분, 삼국지 보셨죠? 왜, 바람을 순응케 해서 동남풍을 불게 한 누구죠? 제갈공명이요.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이걸 말하다가 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레이저 광선을 쬐어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자궁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모든 게 속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 도리를 안다면 자작, 여기 이 친구들이 광력을 끌어서 광선으로써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체험을 해야죠.

이거는 불법이니까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좌선을 할 때에, 즉 말하자면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편안함이 있고 내가 좀 '아! 조용하게 좀 앉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만이 앉아서 좌선을 하게 됩니다. 좌선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앉아서 할 때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 있고, 일어나도 일어난다는 생각도 없이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선을 한다고 하고 앉아 있으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이 앞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앉아 있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 있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눕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소에 가서 앉아 있든지…. 변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 조용해서 생각이 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도 망상이라고 끊어 버리려고 생각마시고 '그저 나하고는 상관없어. 주인공이 생각나게 했으니까 주인공 알아서 해!' 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고 망상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망상이 나오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유 아니야? 거기서밖엔 할 수 없으니까. 넘어지는 놈도 거기요, 일어나는 놈도 거기니까 말이야. 참 그 마음을 지혜로써 써야지 소견을 좁게 쓰면 항시 종종걸음을 걷게 되고 빨리 서둘러서 내가 깨치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깨치려고 애쓰지도 말고 안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여여하게 그대로 하는 게, 그대로 몽땅 그놈이 하는 거니까 무슨 거기에 이유가 붙을 이치가 있어야지, 응?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쁘다 좋다 하기 이전에 나쁘다는 생각이 들면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 아니냐?' 하는 거죠. 또 좋게 했으면 '아휴, 감사하구나.'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엔 없겠죠. 어떠한 일이 과거로부터, 인과로부터 닥친다 하더라도 '음, 과거에 입력이 된 거고 입력이 된 것도 네가 한 거니까 입력을 없애는 것도 네가 하는 거.' 하고 다 맡겨 놓고 '주인공!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는 것도 너밖엔 없다.' 하고 거기다가 놓고, 생활 속에서 용도에 따라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준 놈도 너니까 안 주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았을 때, 상대에서 나를 모략을 하고 들어올 때도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한번 돌아다보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그 사람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 당신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 할 때에 그 상대방의 마음이 스스로 녹아져 버리고 내 마음과 같이 착해지고 의리가 있게 되고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를 대하고 아무리 마구니다 할지라도 마구니라는 생각을 말고 모자란다는 생각을 마세요. 모든 것은 내 모자랄 때 내 모습이요, 내가 나쁜 일을 할 때 내 모습이요, 지금만 내가 살았던 게 아닌 까닭이죠. 그럼으로써 가정에서도 자식이나 형제나 잘못됨이 있으면 모든 건 내 탓으로 돌리고 부드럽게 말을 해 주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는 그러한, 주인공에서밖에는 해결 못 한다는 그런 믿음을 진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형제하고도 자식하고도 똑바로 잘 나갈 수 있고 공부도 머리가 트여서 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뿌리를 돋워 주니까 뿌리가 썩지 않으니 가지가 썩지 않을 것이고 열매가 크게 열려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4월 8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문 의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